

## “자문위원회가 앞장서 구독자 확보”

###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제22차 임원회의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제22차 임원회의가 3월27일 소흘읍 모 식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 1월과 2월 재무보고와 장기간에 걸쳐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위원과 회비를 미납한 위원에 대한 해촉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효열 발행인은 “그동안 각종 자문을 해 주신 자문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각 분야의 권위자인 자문위원들이 더 많은 사람이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최 발행인은 “올 한해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면서 “신문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16만 포천시민이 신문을 볼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임원들의 당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한희준 고문

지금 포천은 이렇다 기사는 행정에 관한 내용을 심층취재한 것이다. 안보면 공급해 준다. 포천신문은 지면이 굉장히 많은 편으로 경제적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자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논의하고 자문위원회에서 구독자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자.

#### ▶이희용 감사

어려운 과정에서 포천에총 회장에 당선됐다. 당선은 포천신문과 함께 해 온 덕이라고 생각한다. 포천신문을 보호하고 지켜가는 역할을 하겠다. 포천신문에 대해 반목하는 사람이 있는데 포천신문은 지역의 정체성을 잘 표현하고 있고, 지역의 보배라고 생각한다.

#### ▶강경만 법률분과 위원장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 경기북부 시대가 도래할 것 같다. 양주에 비해 포천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포천신문이 그 중심에 있어



야 한다. 2개월마다 정기회의를 하는데 각 분야별로 2~30분 동안 세미나 형식으로 했으면 한다.

#### ▶윤종성 감사

최근 사립대학들이 3월 정책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3월 정책폐지에 대해 KBS는 포천고 학

생과 학부모들의 멘트를 비판하고 있다. 포천신문에서도 3월 정책 폐지에 관한 기획기사 등이 필요하 다. 또 정기회의의 시간이 너무 늦다. 회의 시간을 앞당겨 분과별 토론회 필요하다고 본다.

이희준 기자 forme65@paran.com

## 이상일의 탐조(探鳥) 이야기 ⑨ 쇠기러기(white-fronted goose)

### ‘한번 짝을 지으면 평생 그 짝과 지내는 새’

봄기운이 완연한 오후 창밖에는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한 무리의 새들이 날아든다. 쇠기러기는 철원평야나 천수만, 주남저수지 등에서 월동을 하지만, 우리동네에는 이들이 지나가는 중간 경유지이기 겨울에는 쇠기러기를 볼 수가 없고, 봄 가을에 가끔씩 관찰되기도 한다.

작년에는 4월 중순경에 북상하는 쇠기러기 500여 마리가 관찰된 일이 있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약 1달 정도 빠른 편으로 아마도 이것은 지난 겨울 날씨가 예년보다 따뜻했기에 북상시기도 그만큼 빨라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약 1천여 마리가 군무를 이루다가 포천시 군내면 인근 논에 차례차례 내려앉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논에는 쇠기러기의 무리로 장관을 연출한다.

이들은 월동지에서 겨울을 지내고 시베리아로 돌아가는 도중에 체력을 보충하며 이곳 포천에 내려앉아 먹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예년의 경우를 보면 대략 10여일 정도 머물고 가는것 같다.

지금 이들은 먹이활동이 시급한 상황이라 보통 때보다 경계심이 덜한 편이라 가까이 접근을 하여도 별로 의식을 하지 않더니 논에 갑자기 나타난 트랙터 소리에 일제히 머리를 들고 한 방향을 주시하더니 그중 가장 대장격인 한 녀석의 신호로 일사분란하게 공중을 향해 날아오르는가 싶더니 다시 열의 눈에 내려앉았다.

그리고는 맨 앞에 1마리가 주위를 감시하며 동료 쇠기러기들이 안심하고 먹이를 먹도록 돕고 있는데, 이 녀석은 아마도 서열이 꽤나 높은 경비대장쯤으로 보인다.

쇠기러기의 주식은 남곡이며 고인물에서 작은 곤충이나 유충 등을 먹는 것 같았다. 그렇다보니 농사철에 버린 농약병에 의해 오염된 물을 먹고 집단 폐사하고 또 그 주변에 서식하는 독수리나 다른 맹금류들이 이들의 사체를 먹어 2차 감염되어 폐사하는 사례가 언론에 가끔 보도되기도 하는 그 비운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요즘은 겨우내 월동지에서 먹이를 먹고 살핀 다음 봄이 되면 시베리아로 날아가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돌아가지 않고 토착화된 녀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쇠기러기가 텃새가 되어



2007.03.13 포천시 군내면에서 촬영

우리나라에서 살게 된다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낳을 수가 있다. 이 녀석들이 모내기 해 놓은 논에 앉게 되면 모내기 해놓은 모에 붙은 벼 죽정이를 남곡으로 알고 때 먹으려고 모를 다 뽑아놓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게 될 것이다.

당연히 우리 농민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될 것이다. 옛 부터 기러기는 신의와 화복, 그리고 정절을 상징하는 새로 여겼으며 전통혼례에서 목안(木雁)을 전하는 의식도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한번 짝을 지으면 평생 그 짝과 함께 지낸다고 한다.

그런 연유에서 서로 사랑하며 아들딸 많이 낳고 백년해로하라는 기원의 표시로서 혼례에 기러기를 택했을 것이다. 기러기는 만약 수컷이나 암컷

중 한 마리가 죽게 되면 남은 기러기는 죽을 때까지 정조를 지키고 혼자 살아간다고 하니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이 얼마나 부부애가 돈독하고 아름다운 모습인가. 한 해 농사를 모두 마친 늦가을에 우리나라를 찾아와 월동지에서 겨울을 무사히 지내고 다시 돌아가기 위해 질서정연하게 오늘날도 북녘하늘을 향해 무리지어 하늘을 나는 기러기!

금슬 좋은 짝을 이루며 살아가는 기러기한테 배울게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포천생태연구회 회장 이상일 017-705-0994

## ‘친밀하고 우애 깊은 애국 유공자회’

(사)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포천시지회장이 · 취임식

(사)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회 포천시지회 지회장 이·취임식이 3월28일 오전11시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소재 용정웨딩홀에서 3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이·취임에는 황영철 포천시 부시장과 이유형 경기도의원, 강수동 동천장학회 이사장, 이만규 포천문화원장, 이광호 재향군인회장, 임영화 상이군경회장, 서동원 대한민국 무궁수훈자회장, 김재룡 포천재향경우회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이날 제2대 이금중 회장은 이임

사를 통해 “앞으로 포천시 6.25 참전 유공자 지회가 최기중 회장님을 비롯하여 회원여러분의 조직강화속에 서로 화합하며 노인들의 조직력에 존경받는 6.25참전 유공자 포천시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기중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같이 수고하실 책임동료들과 같이 있게 협의하여 더욱 친밀하고 우애 깊은 애국, 유공단체로 거듭나는 유공자회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포천신문 발전 견인차 역할’ 다짐

포천신문 골프회 3월 정기라운딩 가자



포천신문 골프회(회장 박노현)는 3월22일 포천아도니스 컨트리클럽에서 2007년3월 정기라운딩을 갖고 포천신문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위해 정기독자 확보에 한마음으로 나설 것을 다짐했다.

박노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골프는 스포츠 중에서 경기 시간이 가장 길어 인내와 깊은 집중을 요구하는 경기”라며 “이 골프를 통해 우리가 한마음이 되고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효열 상임고문은 “한희준 전 회장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포천신문 골프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각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골프회 가입여부를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 팀을 늘려야 할 정도라며 좋은 날씨만큼이나 앞으로 모든 회원가족 여러분들이

건승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승찬 경기위원장은 “포천신문 독자확보에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포천신문 홈페이지도 방문하여 포천신문 발전에 관심과 열정을 보이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게스트로 초청된 황성택 전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장은 “오늘 경기를 해보니 한가죽처럼 단단히 묶여져 있어 보기가 좋다”며 “포천신문과 더불어 포천신문골프회도 크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이용 포천신문 운영위원장이 이날 처음 경기에 참석해 “오늘 날씨도 좋고 함께 경기하니 보기도 좋다”며 “앞으로 실력을 갖고 닦아 여러 회원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오를 새롭게 하기도 했다.

이날 경기결과와 다음과 같다. ▶메달리스트 박노현 회장 ▶우승 김영복 총무 ▶준우승 조정선 회원 ▶근접상 이찬우 회원 ▶장타상 김진우 회원 ▶행운상 박운중 회원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모자챙싱 전문제조 주형산업



국내 우수 모자제조업체 납품중  
 미주시장을 비롯한 세계유명 모자업체 수출중  
 생산라인 자동화시스템(대량생산 가능)



■ 연 혁 ■

- ▶1994년 : 주형산업 설립
- ▶1998년 : 모자챙싱 만곡선형 및 제조장치 특허 획득, 실용신안등록
- ▶2000년 : 방글라데시 현지공장 설립
- ▶2003년 : 중국 특허 획득
- 베트남 현지공장 설립 및 특허획득
- ▶2004년 : 베트남 단독투자 법인등록
- ▶2007년 : 베트남 국영공단(베트남/싱가폴공단)내 공장설립

■본 사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 527-5  
 TEL : 031) 541-4420~1 FAX : 031) 541-9047

■베트남 법인 : VSIP 8 STREET, VSIP, BINH DUONG VIETNAM  
 TEL : 84-650-788-821 FAX : 84-650-788-822

대표 : 배 성 호

